국 · 시립합창단 19곳, 기독교 선곡 80%

조계종 종평위, 종교편향 실태조사

불교음악원 보고서 공개
지휘자 상당수도 기독교
"찬송 음악 중심 심각해"
복무 규정 강화 등 촉구
불교계 자성의 목소리도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사회부(부장 원경)와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도심, 이하 종평위)가 '전국 국 · 시립합창단 종교편향 실태조사' 를 진행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국립합창단의 모든 공연에서 기독교 노래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전국 대부분의 시립합창단에서 70% 이상의 기독교 곡으로 공연이 채워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조계종 사회부와 종평위의 의뢰로 불교음악원(원장 박범훈)이 담당했으며, 전국 국 · 시 · 도립합창단 19단체를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9월 10일까지 진행됐다.

공개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립합창단의 정기 공연 가운데 3.1절과 광복절, 시민을 위한 행사 등 기독교 곡 선정이 불가한 경우 외에는 모든 공연에서 기독교 노래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 코로나 영향이 없던 2018년 국립합창단 지방순회공연의 경우 13개 공연 중 7개 도시 공연서 기독교 노래가 100%이거나 필수적으로 편성돼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종평위는 "국립합창단 뿐만 아니라 인천, 수원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시립합창단에서 70% 이상의 기독교 곡으로 공연이 채워지고 있었다"며 "사실상 공립합창단에서 특정종교의 선교공연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결과를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종평위는 "전국의 국 · 시립합창단이 합창곡목으로 기독교음악을 선정하는 것은 일상화된 일이라고 볼 수 있다"며 "공립합창단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모든 활동이 국민의 공익을 위해 이뤄져야 함에도 이들의 인적 구성과 공연 내용에 있어서 서양음악의 기독교 찬송음악 중심으로 매우 편향되게 운영되고 있음이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편중된 선곡의 주요한 요인으로는 지휘자들의 종교를 지적했다. 전국의 공립합창단 지휘자 모임인 한국합창지휘자협회(KCDA)의 고문과 이사, 사무인력 등 거의 전원이 교회합창단 지휘자와 신학대 교수로 이뤄져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KCDA 소속 지휘자는 약 57명 이상으로 우리나라 합창 관련 실질적인 결정권자들"이라며 "이들의 경력과 활동배경을 보면 절대 다수가 개신교회나 성가대 혹은 신학대학 교회음악의 배경을 지니고 있고 가톨릭은 극소수여서 사실상 개신교 합창단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선곡 양상을 분석한 결과 신학대학 혹은 기독교 재단 출신일수록 기독교 음악의 분포가 높았고, 기독교와 관련되지 않은 일반 대학 출신은 상대적으로 기독교 찬송가 관련 선곡의 비중이 낮았다.

종평위는 "이 세상에는 기독교 음악 외에도 다양한 문화, 종교, 국가, 인종의 수준 높은 음악이 다채롭게 존재한다"며 "공립합창단이라면 국민들의 이 같은 문화적 지평을 넓히고 음악적 소양을 다양화 하는 데 그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종평위는 정부와 지자체에 대해 특정종교 편향행위를 하고 있는 전국의 국공립 합창단의 실태 파악, 향후 공직자 종교편향 예방교육, 예술단 복무규정 강화, 소통 창구 개설 등 다각적인 개선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 · 공립합창단의 종교편향 문제와 관련, 도넘은 행보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중요하지만, 불교계 역시 반성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수준 높은 찬불합창곡 제작과 활성화를 위한 관심 · 지원의 부재, 불교음악 인재 양성 등에 대한 무관심이 이 같은 현실을 가속화시킨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클래식의 범주인 대부분의 합창곡이 기독교 문화권인 서양음악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선곡에 대한 문제제기를 넘어 불교음악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종교계, 탄소중립위 사퇴 결단

"4개월 활동에도 변화 요원"
2050탄소중립 목표상향 촉구



민관합동기구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종교계 민간위원으로 활동해 온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을 비롯한 종교위원들이 결국 사퇴를 결정했다. 이는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NDC안이 탄소중립이라는 근본 목적에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기업 · 산업계 눈치보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정부에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결단이다.

법만 스님과 백종연 신부(가톨릭), 안홍택 목사(개신교), 김선명 교무(원불교)는 9월 30일 서울 광화문 탄소중립위원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사진〉

이들은 "지난 4개월간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이 너무도 촉박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며 2050탄소중립시나리오 안과 2030온실가스감축목표(NDC)안의 합리적인 도출 가능성에 의문이 있었고 위원회의 논의구조와 운영, 회의 내용의 공개와 의견수렴 등 국민 소통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해 왔다"며 "결국 도출된 초안이 특정분야의 이해관계나 과도한 고려로 인해 탄소중립이라는 근본목적에 충분하지 않는 수준으로 만들어지고 있어, 그린워싱 또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도구로 전락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불교계 위원 법만 스님은 '사퇴의 변' 을 통해 유감의 뜻을 명확히 했다. 특히 스님은 "이제는 성장중독에서 벗어나 시급히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이를 정치 속에서 구현하고 경제인들이 함께해야 하며 국민들에게 생활의 전환을 호소해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며 "탄소중립위원회의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하며 사퇴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탄소중립의 실질적인 방안 도출을 위해 올 5월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기구로 출범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 장관 등 정부측 위원과 각 분야별 민간 위원을 포함한 97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에너지혁신 등 8개 분과위원회로 운영 중이다.

송지희 기자

"동곡학원, 지역명문고 만들겠다"

학교법인 동국대 · 동곡학원
9월 30일 인수합병 협약식



(사진 왼쪽부터)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과 학교법인 동곡학원 이사장 태관 스님이 인수합병 협약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성우)가 동곡학원(이사장 태관)을 인수합병하고 의정부 영석고와 같은 지역 대표 명문학원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학교법인 동국대는 9월 30일동국대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학교법인 동곡학원과 인수합병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학교법인 동곡학원 이사장 태관 스님과 윤이용 교장, 김무상 교감이 참석했다. 학교법인 동국대에서는 이사장 성우 스님과 상임이사 성월 스님, 건학위원회 상임최고위원 돈관 스님 등 동국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성우 스님은 "양 기관의 설립취지인 불교적 인격도야를 통한 중등교육의 지속적인 발전과 숭고한 교육철학을 승계 · 유지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인수합병의 배경을 설명하며 "학교법인 건학위원회 출범 후 첫 인수합병이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크다. 이번 합병은 제2건학운동이 가시화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화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곡학원이 동국대에 무상 기부 형태로 인수합병됐다. 향후 선화여고는 교육부의 합병 인가 절차를 거쳐 동국대 사범대학 부속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가 설립한 동곡학원은 지난 2010년 경북 영천 선화여고를 인수해 운영해왔다. 현재 총 15학급 327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6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지역 명문학교다.

협약 체결 직후 동곡학원 이사장 태관 스님은 "보다 더 나은 미래교육을 위해 동국대와 인수합병을 결정했다"면서 "동국대가 가진 풍부한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선화여고가 경북 영천의 명문고로 거듭났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성우 스님은 "지난 2010년 의정부 영석고를 인수합병한 바 있다. 영석고는 학교법인 동국대가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결과, 이제는 의정부지역을 대표하는 명문 고등학교로 자리매김했다"며 "영석고를 발전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선화여고가 영천을 넘어 경북을 대표하는 명문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금강산 순례길 계기로 조제암 가치 재조명"

민추본, 금강산 옛길 학술세미나
발제자들, "남북교류의 현장"
순례길 · 조제암 복원에 기대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추진하는 금강산 순례길 사업은 불교계 문화유산이 집중되어 있는 금강산과 남한 지역인 강원도를 연결하는 소통의 길로서 의미가 크다."

"건봉사와 유점사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조제암은 단순한 폐사지를 넘어 추후 남북교류에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다. 금강산 순례길의 일환으로 진행된 지표조사가 폐사된 조제암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본격적인 남북한 문화교류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월우)가 10월 1일 '금강산 옛길 및 조제암의 역사적 가치와 남북교류 활용방안' 을 주제로 개최한 학술세미나〈위사진〉에서 발제자들은 금강산 순례길 사업과 조제암 연구가 향후 남북불교교류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역사 속의 금강산 가는 길' 을 주제로 발표한 이경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관은 "고성은 관동의 경승과 금강산을 연결하는 요지로, 불교유적이 곳곳에 남아있을 뿐 아니라 옛 선인들이 유람지로 가장 많이 찾았고 금강산과 함께 뛰어난 경승지로 여겨졌던 곳"이라며 "고성에서 시작되는 금강산 순례길은 21세기 민족화합의 길이자 금강산에 산재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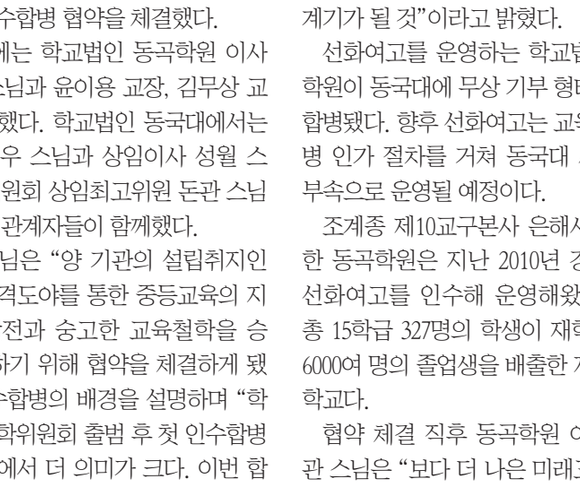
'고성 조제암의 전승기록과 역사' 를 발제한 황인규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금강산 순례길 사업과 연계된 폐사지 조제암의 가치에 주목했다. 황 교수는 "고성 건봉사는 현대에 들어 주목받으면서 복원됐지만 조제암은 분단 후 민통선 지대에 위치해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안타까움을 먼저 전했다.

이에 황 교수는 "조계종의 조제암 재산회복과 더불어 문화재관리국의 조제암 지표조사,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와 고성군의 사지 지표조사 등으로 조제암의 존재가 부상하고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금강산 순례길 사업을 계기로 조제암의 역사적 · 현재적 의의가 부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제암 지표조사를 진행한 불교문화재연구소 이현수 유적연구팀장은 "사지는 단순한 절터가 아니라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많은 문화재와 사건이 있었던 곳으로 단순히 불교사 외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후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다"며 "조제암이 모든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역사문화유산, 성보로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기초단계부터 세심하고 체계적인 보존정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기대했다.

송지희 기자

Since 1972 80쇄



불교 신행의 길라잡이
불교성전

「법정스님」이 엄선한 팔만사천 부처님 말씀이 한권에 담겨있습니다.

소중한 가족과 지인에게 나누는 부처님말씀이 삶의 지혜가 되어 행복한 삶을 이루어 드립니다.

법보시〈불교성전〉
정가 ~~42,600원~~ → 39,000원

법정스님의 〈불교성전〉이 50년 만에 다시 출간됐습니다.
자연스러운 한글 문장으로 읽기 쉬워진 〈불교성전〉을 법보시하세요.

동국대 불교학술원 산하
동국역경원 〈불교성전〉의 새로운 기획!
교계 처음 제작, 〈야전 불교성전〉 & 읽으며 따라쓰는 〈불교경전 필사본〉



〈불교성전 필사본〉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제작
190×260mm
상권 288쪽, 하권 360쪽
각 권 값 15,000원
세 트 값 30,000원

〈야전 불교성전〉
불교성전편찬위원회 지음
125×187mm
824쪽(양장본)
값 24,000원

법보시 불교경전 세트



SET1 〈불교성전 + 상월선원〉
정가 ~~58,600원~~ → 53,400원
〈불교성전〉과 풍찬노숙 천막결사, 한국불교의 희망을 말하는 〈상월선원 – 천막결사 90일 간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SET2 〈불교성전 + 선종사부록〉
정가 ~~60,600원~~ → 55,200원
〈불교성전〉과 참선이 무엇인지, 선수행이 무엇인지를 찾는 수행자와 일반인들이 꼭 읽어야 할 책 혜거 스님의 〈선종사부록〉을 담았습니다.



SET3 〈불교성전 + 불교입문〉
정가 ~~64,600원~~ → 58,800원
〈불교성전〉과 동국대 불교대학이 불교 입문자들을 위해 새롭게 펴낸 불교학 정통교과서 〈불교입문〉을 담았습니다.

세트구성 ① 〈불교성전〉과 다른 추천도서로 세트 구성이 가능합니다. ② 〈불교성전〉과 다양한 물품으로 구성가능합니다. ex)염주, 반지, 공진단, 학교기념품 등 ③ 선물하시는 분의 인사말 카드도 함께 넣을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주문전화 02-2264-0142 주문팩스 02-2268-7851 E-mail abook@jeongjincorp.com